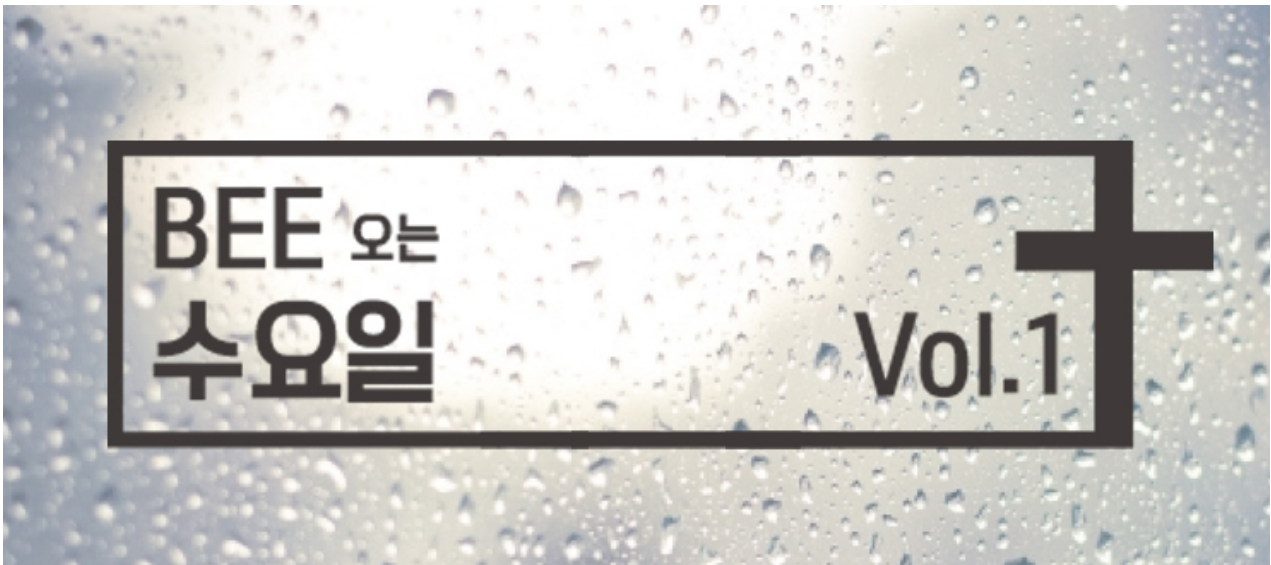




열일곱번째 이야기

"아뇨, 할 수 있어요."

그를 만난 건 올해 1월, BEE Korea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처음엔 조선족 동포인줄 알았습니다. 억센 강원도 사투리, 언제나 약간 떡진 머리, 사무실 동료들이 모여 한참 무슨 얘기를 이어가면,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지금 대체 무슨 얘기하시나' 하는 뒷북 표정으로 눈을 껌뻑껌뻑 거리는 순둥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짜증난듯 "이거 고칠 수 없죠?" 라 물어보면, "아니요 할 수 있어요"라 답하며, 수회에 걸쳐 부팅에 실패한 낡은 컴퓨터를 재부팅해주거나, 사무실엔 절대 없을 것 같은 사소한 살림살이까지 후다닥 움직여 대령해 줍니다. 까닭에 사무실 다른 식구들은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마다 그를 찾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예 해드릴게요"라며, 단 한번도, 적어도 제가 당시 지켜본 바로는, 정말 단 한번도 짜증 내지 않고, 이 사람 일을 돕다 바로 저 사람 일을 해결하고, 여기 있다가 금방 저기 다녀오기를 웃으며 반복합니다. 아, 그런 그가 "아뇨 할 수 있어요" 만큼 자주 쓰는 표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상대방에 대한 긍정과 지지를 그렇게 담아내는 그는 늘 이렇게 단문으로 답하고, 속성으로 움직이는 이곳 사무실의 '모든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BEE 오는 수요일 열일곱번째 이야기**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예,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BEE Korea의 전직 맥가이버, 권태남 선교사님입니다. ^^



2년 전 그의 결혼식 비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15만원을 들여 웨딩드레스를 마련했습니다. 신부 화장엔 거금 20만원이 들었습니다. 신랑 입장은 조문상 사무총장님 구두를 빌려 신고 나섰습니다. 예복은 평소 입던 단벌 양복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BEE Korea 지하 예배당. 식장 꽃장식을 하는 데 10만원이 들었습니다. 직접 꽃을 사다가 친구 어머니께 부탁드려 마련했습니다. 다른 장식은? 신랑이 직접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각종 풍선과 문방구에서 구입해 만든 다른 장식물들로 늦은 밤까지 식장을 직접 꾸며야 했던 신랑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BEE 사무실에서 뺨어 잤습니다. 결혼식날인 다음날 아침엔 허기진 배를 인근 식당에서 순대국 한 그릇으로 달랬습니다. 피로연은 도시락으로 대신했습니다. 10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식장 사정상 많은 하객들이 오셨으나, 인사만 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신혼여행비는 200만원. 여기에 결혼식 비용 200만원. 신랑 신부가 아끼고 아껴 모아온 저금통장을 텅 금액이었습니다.**

신부는 BEE Korea에서 만난 간사님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늘 화난 얼굴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때 아내는 사무실이 너무 추워 발이 동상에 걸린 채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리바리한 신입직원인 지금의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새로 맡은 업무 이것저것을 당시 사무실 고참이었던 지금의 아내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더랬죠. 그러고도 맡은 일 마다 실수가 이어졌고, 틀린 내용을 다시 바로잡는 일은 동상 걸린 발로 벌벌 떨며 매일 울면서 출근해야 했던 아내에게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미운정으로 시작해 결혼까지 골인한 신랑은 결혼 초 6만원의 한달 용돈을 아내에게 받았다 했습니다. ‘그걸로 한달 생활이 가능하더냐’는 질문에, 그는 특유의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지갑엔 늘 돈이 남아 있었다” 했습니다. 지금 얼마 있나하고 그의 지갑을 확인해 보니,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는 “진짜 아무 것도 필요한 게 없다” 며 웃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IT 관련 기기나 프로그램은 사실 조금 탐난다” 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고장 상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부부 합계 연봉이 3000만원에 조금 모자란 돈으로 살아가던 신랑신부는 사무실 인근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참 행복했다고 신랑은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를 갖게 되자 아내는 BEE 를 그만뒀습니다. 연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신랑의 한달 용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에게 아주 드문 상황이 닥칩니다. 좀 처럼 뭘 탐하지 않는 그에게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물건이 생긴 겁니다. 1000원 짜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마음이 편하면 사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늘 마음이 편하다”고 답합니다. 아내는 “그럼 편한대로 하라”고 답합니다. (아내는 세살 연상! 아시다시피 전직 사무실 고참입니다 ^^) 남편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했습니다. “그냥 하라 그럼 되지, 꼭 너 편한대로 하라 한다”며 투덜댑니다. “그래서 샀느냐” 물었더니, 그는 특유의 순진무구 미소를 지으며, “아뇨”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청소년기는 늘 농사 일에 치어 보냈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공부하고 늦게 잠든 그를 아버지가 새벽 2시에 깨우시더라고요. 밭에 농약을 치러가야 하니 누나들 대신 아들인 니가 같이 나가자 하신 겁니다. 새벽 두시 부터 농약을 치고, 그날 예정된 중간고사를 보러 가야 했던 아들은 결국 그나마 조금 준비한 시험 공부를 충분히 점수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보다 너무 피곤해 그만 잠들어 버렸기 때 문입니다. 그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집에서 제일 먼~ 대학에 가고 말리라.' 강원도 평창 출신인 그는 다짐대로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그리 편하고 좋았다는 말 을 덧붙였습니다. "잘 데도 있고, 삼시세끼 먹을 것도 나오고, 군대 훈련이라고 해봐야 집에서 농사하던 거에 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달 10일,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케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영어 할 줄 아냐"고 묻자, 그는 (어떻게 그런 당연한 걸 묻냐는 눈으로) "아뇨"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안될 것 같은 데'...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제게 "아니요, 할 수 있어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쳤습니다. "네, 맞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 제게 떠오르는 말씀 입니다. 그는 제가 올해 만난 '작은 예수' 중 한 분 이십니다. 아내 김미연 선교사님, 첫돌이 안된 딸래미 유하와 함께 이 더운 날, 더 뜨거운 땅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는 이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 & 김 선교사님, 그리고 유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글: 최승호, 편집: 최지영)

권태남 선교님은...

1. 2012년 부터 올해 2월 까지 BEE Korea 간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내이자 선배셨던 김미연 선교사님께서 2011년 10월 부터 2015년 말까지 BEE Korea를 섬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귀하고 성실한 섬김에 이 작은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면 잘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셨지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는 어느샌가 나타나 늘 웃으며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난 9일 All & One 행사에서 BEE 차원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파송식은 7월31일 서빙고 1부예배, 양재 3부 예배 중 진행 됩니다. 8월 10일 출국 후 케냐에 도착하면, 나이로비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아띠리버 에서 어학 코스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뇨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의 토익 만점을 응원합니다. ^^ 아침, 딸 유하의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에서 유래했다 하네요.
3. 두 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 현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잘 섬기도록
 -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 공부를 통해 언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BEE 소식

1.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께서 8월20일까지 Home to Home 훈련 받으십니다.
2. 7월27일부터 31일까지 9명의 BEE 가족이 베트남으로 아웃리치 다녀옵니다. 은혜 넘치는 기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